

드론으로 섬 택배...여수 '드론 실증도시'로 뜬다

국토부 공모 선정 국비 7억 확보... 11월까지 '바로가-島' 개발 화정면 개도에 2026세계섬박람회 물류거점...항로 개발 추진

365개 섬을 지닌 여수시가 섬과 바다를 드론으로 오가는 '드론 실증도시'를 구축한다.

여수시가 구축한 종합 드론 관제 시스템은 2026 세계섬박람회 물류거점을 갖추는 데 활용된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됐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공모에는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이 가운데 여수와 고흥 등 16개 지자체가 뽑혔다.

여수시는 국비 7억원 포함 총사업비 11억여 원을 투입한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드론 활용 물품 배송 서비스인 '바로가-도(島)'를 추진할 계획이다.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은 시군 특성에 맞는 산업용 드론 활용 사업을 발굴해 국비를 지원받아 연구·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바로가-도(島)는 순환형 드론 배송 서비스로, 배송 취약지인 섬 지역 물류 편의를 제공하고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위해 추진된다.

여수시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는 여수에 본사를

둔 스카이포츠-K와 해양드론기술(주), 무지개 연구소가 구성한 연합체가 참여한다.

스카이포츠는 영국의 도심항공교통수단(UAM)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회사이다.

바로가-도(島)는 화정면 개도에 있는 2026세계섬박람회 지원 시설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개도에 종합 드론관제시스템과 드론 정비소, 물류 보관소 등을 갖춘 물류거점을 두고 국동 수변공원, 남면 금오도, 돌산읍 송도의 물류분소에 최대 8kg 이하의 의약품, 특산품 등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여수시는 드론 배송 서비스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최근 섬 지역 어촌계와 우체국, 농협, 관광호텔 등과 협의를 마쳤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UAM 항로 개발, 드론산업인력 육성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우리 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으로 4차 산업시대 '드론모빌리티 선도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섬과 바다를 잇는 드론 배송 서비스를 추진한다. 여수시 드론 배송 사업 추진 계획도. <여수시 제공>

여수시, 관광대책반 운영 시민 불편·교통 등 15개 분야

여수시가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관광 종합대책반을 운영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관광종합대책반 운영을 중점으로 한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관광지 불편 사항을 해소 등 관광객과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광종합대책반은 오는 10월29일까지 운영되며 상황반, 시민불편, 교통-숙박-식품-위생 등 15개 분야에 12개 부서 66명이 근무하게 된다.

대책반 근무자는 관광수용태도 개선을 위해 관광지 사전 현장 점검 및 불편 처리사항 접수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4월에 개막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관광객들이 여수시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 안내 및 불편 처리, 교통, 숙박, 식품, 위생, 쓰레기 등 4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막혔던 해외 여행이 재개되면서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월1일~10월31일)가 열리는 순천만국가정원 안 호수정원이 불을 밝히고 있다. /순천=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순천만정원박람회 미리 만나세요

25일 사전 체험 행사 3만명 초대...무료 체험권 순천시 홈페이지 등서 예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프리오픈(pre open) 행사가 25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박람회장에서 펼쳐진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3만 명의 관람객에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개장 전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특별 체

험권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

특별 체험권은 음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1만 매를 배부할 예정이다.

나머지 2만 매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시청 누리집에서 프리오픈 행사 체험권 예매를 통해 누구나 제공 받을 수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 '프리오픈' 행사는

시민들과 박람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사전 입소문을 통한 박람회 붐 조성 및 이슈화를 위해 준비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도심 등 3개 권역에서 개최되며,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정원을 통해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 정원 속에서 사는 건강한 삶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눈이 즐거운 행복한 하루 '광양 주말여행'

광양시, 남도한바퀴 상품 추천...일요일 광주버스터미널 출발

광양시가 광주에서 출발해 광양 원도심과 대표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남도한바퀴, 광양주말여행'을 추천했다.

올해 봄 진행하는 광양주말여행 '눈이 즐거운 행복한 하루'는 매주 일요일 떠날 수 있다. 오전 9시 20분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에서 버스를 출발해 9시 50분 광주송정역을 거친 뒤 광양으로 향한다.

광양 원도심에 있는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장고, 서천변 광양불고기 특화 거리, 백운산자연휴양림, 옥룡사동백나무숲 등 대표 관광지를 하루에 모두 즐길 수 있다. 오후 6시(유·스퀘어)에는 광주에 도착한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리처드 케네디:에이시-듀시' '시의 정원' '신규 소장품전' 등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특히 오는 26일은 지역 작가의 발자취를 조명

하는 '고화흙, 이제야 비로소 나의 백안을 찾아' 전시가 열리는 마지막 날이다.

25-26일 이틀 동안에는 옥룡사동백나무숲에서 '광양동백 천년축제'가 열린다.

옥룡사지 터 인근을 1만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빼빼하게 둘러싼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남도한바퀴, 광양주말여행은 '남도한바퀴 홈페이지(citytour.jeonnam.go.kr)와 전화(062-360-8502)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1인당 1만2900원이며, 관광지 입장료와 여행자 보험료, 식비 등은 제외된다.

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 봄 여행 '눈이 즐거운 행복한 하루'는 광양의 수준 높은 예술 공간과 아름다운 봄 정취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주말여행"이라며 "소중한 사람들과 햇살 가득한 광양 봄 주말여행을 계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5분 멈춤으로 안전한 직장 만들자"

LG화학 여수공장 노사 한마음 안전 문화 캠페인

LG화학 여수공장이 무재해 사업장 달성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사 한마음 5분멈춤 안전 문화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지난 20일 LG화학 여수공장 앞에서 윤명훈 주재임원과 이근주 글로벌 생산센터장, 박준철 노동조합 위원장이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작업 전 5분 멈춤 캠페인을 펼쳤다.

정기명 여수시장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피해근지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오금남 지사장), LG화학 공장 노사정 관계자 100

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5분 멈춤 캠페인을 통해 불안정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나와 동료의 절대 안전을 확보하자고 밝혔다.

사내 7대 안전 수칙 절대 준수를 위해 작업 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위험 요소 확인, 안전 조치 확인, 적정 보호구 현장 최종 확인 등이 있다.

LG화학 여수공장 관계자는 "5분 멈춤 캠페인을 통해 사업장 내 임직원 모두가 철저한 안전의식으로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조합원 편익 증진 노력...전국 최고 농협 될 것"

순천농협 최남휴 신임 조합장

전국 최대 규모 순천농협의 최남휴(사진) 신임 조합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순천농협은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선거에서 당선된 제8대 최남휴 조합장 취임식이 지난 21일 순천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소방청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정관계 인사, 지역 내부 조직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최남휴 조합장은 순천농협 유통사업 추진단장과 경영지원 본부장, 주요 지점 지점장 등을 두루



거치며, 36년간 농협 실무 경험을 갖춘 협동조합 전문가로 알려졌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농협의 농협 지방자치, 영농 지원센터 확대 개편, 영농자재종합판매장 개설, 지역 농산물 판매역량 확대 등 주요 선거공약을 내걸고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최남휴 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배웠다. 시대변화의 흐름에 대처하고, 조합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농협을 위해 준비해 전국 최대가 아닌 최고의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순천농협은 전국 유일한 시 단위 농협으로 조합원 1만8000여명, 총자산 2조원이 넘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600여 농가 기계 구입비 지원

농가당 최대 300만원

곡성군이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역 599농가에 농업기계 구입비 9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2월 보조금 심의를 거쳐 영농철 전 지원 농가를 확정해 대상자에 통보했다.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상 농가의 영농 규모와 연령 등을 고려해 총 세 가지 사업으로 추진된다.

영농 규모 1.5ha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과 1.5ha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한 '다목적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농

업기계 구입비로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만 19세부터 4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농업인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곡성이 주민등록이 돼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확정된 농가에서는 해당 농업기계를 상반기 내에 구입하고 군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입비의 5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보성군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

보성군이 세무사 2명과 함께 올해부터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용한다.

지난 2018년부터 보성군이 위촉한 마을 세무사 2명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비용 부담으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이 상담 대상이다.

보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마을 세무사에게 전화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소셜미디어(SNS)와 현수막 등을 통해 마을 세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마을 세무사 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군민과 영세 사업자의 세금 고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세정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보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